

사사기

사사기는 역사서의 두 번째 책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저자로 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이 수립될 때까지 활약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당시 군사 및 재판권을 갖은 지도자로 모두 12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업적에 따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6 명의 대사사(아래 표에서 이름이 highlight 된)와 그렇지 않은 6 명의 소사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기도 하지만 그의 악행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엘리의 제사장 및 사무엘의 선지자로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기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불신앙의 악순환을 되풀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여호와와 목전에서 우상숭배의 악을 행함) → 심판(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 넘겨주심) → 회개(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함) → 구원(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

	사사	지파	대적	기간	특기사항	사사기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8 년		3:8
1	오티엘	유다		40 년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첫 사사	3:9-11
			모압 왕 에글론	18 년		3:12-14
2	에훗	베냐민		80 년	왼손잡이, 최장기간의 사사	3:15-30
3	삼갈	납달리(?)	블레셋	?	소 모는 막대기	3:31
			가나안 왕 야빈	20 년		4:2-3
4	드보라	에브라임		40 년	여사사, 바락, 시스라, 야엘	4:4-5:31
			미디안	7 년		6:1
5	기드온	므낫세		40 년	물 먹는 모습으로 300 용사를 뽑음, 별명 여룹바알	6:11-8:28
				3 년	아비멜렉 - 기드온의 서자, 세겜과 밀로의 왕, 포악함	8:29-9:57
6	돌라	잇사갈		23 년		10:1-2
7	야일	므낫세		22 년		10:3-5
			블레셋과 암몬	18 년		10:6-9
8	압다	갓		6 년	길르앗의 서자, 경솔한 서원으로 딸을 제물로 잃음	11:1-12:7
9	입산	유다		7 년		12:8-10
10	엘론	스불론		10 년		12:11-12
11	압돈	에브라임		8 년		12:13-15
			블레셋	40 년		13:1

12	삼손	단		20년	나실인, 힘센 장사, 들릴라	13:2-16:31
----	----	---	--	-----	-----------------	------------

노트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분배 받은 가나안 땅을 협력하여 함께 정복하러 나선 두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 (삿 1:1-2) ⇒ 여호수아 서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한 것과 같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직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 삿 1:6-7 ⇒ 당시 전쟁포로는 모두 죽이거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노예로 삼았는데 이는 노예로 부역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달리기나 무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아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베섹은 지역의 이름이며 아도니는 주라는 뜻으로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유다 지파가 베섹의 통치자를 잡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형을 가하자 자신이 통치자로 70 명의 다른 왕들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도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3.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 (삿 1:11)
4. 갈렙의 딸 이름은? 약사 (삿 1:12)
5. 드빌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의 이름은? 옷니엘 (삿 1:13)
6. 모세의 장인은 어느 족속 사람이었나? 겐 사람 (삿 1:16) ⇒ '겐'은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암시하듯 가인의 자손 중 금속기술이 뛰어났던 두발가인(창 5:22)의 후예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가나안에 거주하였었으며(창 15:19)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의 후예로 미디안 광야에 살았었습니다.
7.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나? 다 쫓아내지 못했음 (삿 1:27-36) ⇒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민 33:52) 명령과 함께 그러지 못할 경우 그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민 33:55) 말을 이미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 장 도입부에서(삿 2:2-3)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8.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아니하여 울무가 되리라고 경고한 곳은? 보김 (삿 2:1-5) ⇒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울었기에 '우는 자들'이라는 뜻. 이 후 백성들의 행적으로 보아 이 울음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통회나 감사에 몰입되어 우셨나요? 그 눈물의 다짐을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9.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생존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삿 2:7)
10.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삿 2:11-13) ⇒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삿 2:10) 가나안 땅의 우상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11. 사사는 누가 세웠나? 여호와 (삿 2:16)
12. 사사를 여호와께서는 왜 세우셨나?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삿 2:16)
13.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나?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고(삿 2:18) 평온하게 살며(삿 3:11 등) 여호와를 섬겼다

14.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다?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삿 2:19)
15.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여호와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려 (삿 2:22)
16. 첫 사사의 이름은? 웃니엘 (삿 3:9) ⇨ 5 번 참조
17.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사는? 에훗
18. 사사 에훗은 몇 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다? 80 년 (삿 3:30)
19.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는? 삼갈 (삿 3:31)
20. 유일한 여 사사는? 드보라 (삿 4:4)
21.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 받기 전에 무엇이었나? 선지자 (삿 4:4)
22. 드보라가 사사가 된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는? 가나안 왕 야빈 (삿 4:2)
23. 가나안의 군대장관의 이름은? 시스라 (삿 4:2)
24. 사사 드보라가 기용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삼은 사람의 이름은? 바락 (삿 4:6)
25.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바락이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대기한 산은? 다불 산 (삿 4:6)
26. 호باط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기록, 삿 4:11 ⇨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출 3:1, 18:1). 그리고 '르우엘'이라고도 알려져 있지요(출 2:18). 그런데 이 구절에서 호باط이라는 이름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드로는 사제의 신분을 밝혀주는 이름이고 르우엘은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라는 이름 앞에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고 르우엘이라는 이름 앞에는 미디안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باط이 문제입니다. 삿 4:11 에는 분명히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 10:29 에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이라고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영어 성경을 찾아 보았습니다. KJV 에는 father in law, NIV 에는 brother-in-law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단순히 in-law 로 문맥에 따라 장인 또는 처남으로 번역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역개정까지 왔는데도 그대로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27.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패주하여 숨은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삿 4:17)
28.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 (삿 4:21) ⇨ 일명 말뚝녀
29. 드보라와 바락은 승전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표현했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삿 5:20)
30.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표징으로 보인 일은? (지팡이 끝을 염소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삿 6:21)
31. 기드온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고 왜 슬퍼했나(삿 6:22)?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출 33:20)
32.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했지만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곳을 무엇이라 했나? 여호와 살롬 (삿 6:24) ⇨ 여호와와 평강
33.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삿 6:25)
34.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하라고 시키신 일은? 부친의 집에 있는 우상(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상에서 찍어낸 나무로 불을 피워)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삿 6:25-26) ⇨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잡고 있는, 그 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 인격을 바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요. 참고로 레위기에서 공부했듯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35. 기드온은 아버지의 우상을 언제 제거했나? 밤에 (삿 6:27) ⇒ 종을 10 명씩 데리고 간 것을 보면 아마도 작업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한 것은 기드온 자신이 집안 어른과 동네사람들을 무서워해서가 아니고 그들과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종들이 겁을 내어 일이 진전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 하는 동네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파괴한 자는 바알이 직접 죽일 것이라고 31 절에서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러리라고 믿고 한 대답이 아니고 아들을 우선 살리려고 한 대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종들은 당연히 겁을 내고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36. 기드온의 별명은? 여룹바알 (삿 6:32) ⇒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라는 뜻
37.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제일 먼저 기드온을 따른 사람들은? 아비에셀 (삿 6:34) ⇒ 바로 전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이려 하던 문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선 것은 여호와와 영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 같습니다. 또는 신상을 찍어버렸는데도 살아남은 기드온을 보고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38. 기드온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표징으로 구한 것은? 마당에 둔 양털과 마당에 구별하여 내리는 이슬 (삿 6:36-40)
39.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자랑하여 구원하였다 할까 보아 (삿 7:2) ⇒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는지 생각해봅시다.
40.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기준으로 백성들 중 군사를 뽑으라고 하셨나? 물을 손으로 움켜 훑아서 마시는 자 (삿 7:5-7) ⇒ 전투에 임했을 때 방심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자들로 뽑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마시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삿 7:5). 강가에 이른 백성들 중 소수는 용기백배 하여 곧바로 강을 건너 진격하리라 생각하고 물을 손으로 움켜잡아 급하게 훑아 마셨고, 다수는 메뚜기 떼(삿 6:5) 같이 수많이 몰려온 미디안과의 전투가 두려워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무릎을 꿇고 어물어물 시간을 끌며 물을 마셨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적거리며 뒷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앞장 서서 나가고 있습니까?
41.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뽑은 군사의 수는? 300 명 (삿 7:7)
42.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 (삿 8:4-9) ⇒ 숙곳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중 잠시 머물렀던 곳(창 33:17)이며 출애굽 때 라암셋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출 12:37)이며, 후에 갓 지파에게 분배된(수 13:27-28) 땅입니다. 브누엘은 압복 강가의 성읍으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브니엘(창 32:28-30)과 같은 곳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삿 8:7)'는 말은 가시가 돋은 나뭇가지로 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미디안 왕들을 잡은 후 돌아오는 길에 숙곳의 장로들에게 그 징벌이 가해졌으며(삿 8:16) 이는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43.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청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삿 8:22-23)
44. 기드온이 승전 후에 한일로 그 집안에 울무가 된 것은? 금으로 예뻛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둔 것 (삿 8:27) ⇒ 예뻛(출 28:6-14)은 세마포 겹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옷으로 원래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성의입입니다. 후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길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삼상 2:18)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베 에봇을 입었습니다(삼하 6:14). 사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송배의 대상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죽은 후 그 집안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시초가 되었겠지요.

45. 기드온의 서자(삿 8:30-31)로 이복형제 70 명 중 69 명을 죽이고(삿 9:5) 왕이 된 자는? 아비멜렉 (삿 9:6) ⇨ 왕으로 추대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리라고 사양했지만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46. 기드온의 막내 아들로 아비멜렉의 횡포를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요담 (삿 9:5)
47.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왕위옹립이 잘못되었음을 비유로 선포한 산은? 그리심 산 (삿 9:7-21) ⇨ 그리심 산은 신명기 문제 14 번 참조. 요담의 연설은 간명하여 따로 설명이 필요 없지요?
48. 아비멜렉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삿 9:53) ⇨ 일명 맷돌녀
49. 삿 11:3 ⇨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 왔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려서 영어 성경을 보니 KJV 에는 'vain men'으로 NIV 에는 'adventurers'로 되어 있군요. 한글로 잡류가 주는 도덕성이 걸려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험심이 있는 떠돌이 정도로 생각됩니다. 여하간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입다에게 사람을 끄는 매력 내지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데려온 사람은? 입다 (삿 11:5)
51.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했나? 사자를 보내어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음 (삿 11:12)
52. 암몬 자손들의 영토반환 요구에 입다는 어떻게 대답했나? 그 땅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며(삿 11:19-22),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으며(삿 11:23-24),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한지 300 년이 되었다(삿 11:26).
53. 입다는 어떠한 서원을 했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집 앞에 나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삿 11:30-31) ⇨ 암몬 족속은 우상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실행했고 이로 인해 인신제사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레위기 문제 17 번 참조). 한편으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가장이나 아들을 남아있던 가족들이 집 앞으로 나아와서 환영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경황을 볼 때 입다의 서원은 성급하고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번제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평생 동안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4.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른 후 자기들을 불러 함께 가지 않았다고 싸움을 걸어온 지파는? 에브라임 (삿 12:1) ⇨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 걸기가 특기인가 보네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에도 싸움을 걸어왔지요(삿 8:1).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너희들이 아비에셀 우리보다 더 잘 낫다고 추켜세워(삿 8:2-3) 무마했지요.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움을 청했지만 너희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따지고 에브라임을 무찔러버렸습니다(삿 12:2-4).
55. 길르앗 사람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찾아냈나? 쉼볼렛이라는 발음으로 (삿 12:5-6) ⇨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하고 '시'로 발음했습니다. '쌀'하는데 '살'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
56.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 (삿 13:2)
57.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나? 나실인 (삿 13:5) ⇨ 민수기 문제 15, 16 번 참조
58.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은? 기묘자 (삿 13:18) ⇨ 개역성경에는 '기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이로운'이란 뜻의 형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판에는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같은 단어의 명사형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이사야 9 장 6 절에서는 개역판 개역개정판 모두 '기묘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개역개정에서 명사형으로 통일시켰네요. 기묘라는 단어는 비범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설명한다 해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59.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릴 때 일어난 이적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삿 13:19-20)
60. 삼손이 딤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서 (삿 14:3-4) ⇨ 여하간 나실인 삼손이 부정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특이한 일
61.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를 어떻게 했나? 맨 손으로 찢어 죽였다 (삿 14:5-6)
62.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나중에 발견된 것은? 벌떼와 꿀 (삿 14:8)
63. 삼손이 처가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몇 일간 베풀었나? 7 일 (삿 14:10-12) ⇨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게다가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결혼잔치를 7 일씩 했으니 삼손은 나실인으로써는 특이체질이었네요.
64.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처가동네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은? (삿 14:14) ⇨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는 다른 짐승들을 잡아 먹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뜻함. 이 수수께끼를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새로 맞이한 아내가 울며 간청하니 삼손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삿 14:16). 들릴라와의 사건의 전주 같습니다.
65.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친구에게 준 것을 알고 화가 난 삼손이 한 일은? 여우 꼬리에 햇불을 매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발로 몰아 들여서 태워버렸음 (삿 15:4-5)
66. 블레셋 사람들의 발을 불태운 일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을 때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어 블레셋 사람 천명을 무엇으로 죽였나? 나귀의 턱뼈 (삿 15:15-17)
67. 삼손에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삿 16:4-5)
68. 삼손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머리털 (삿 16:17)
69.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자로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돌려준 자는? 미가 (삿 17:1-2)
70.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로부터 돌려받은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나? 신상 (삿 17:3-4)
71. 미가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나? 한 아들 (삿 17:5)
72.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 (삿 17:6) ⇨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제 멋대로 한 2 가지의 타락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3. 미가는 자기의 아들 외에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나? 한 레위인 (삿 17:12-13) ⇨ 미가는 레위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자신의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해있으며 영적인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이 레위족의 생활을 책임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거주지도 없는 떠돌이였습니다(삿 17:8). 영적으로 둔감해진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미가를 만나 그 가문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는 신당을 세우고 은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삿 17:4-5) 이 레위인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삿 17:10) 넘어가 배교하고 만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샅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샅꾼은 월급 주는 주인에게(이 경우는 은으로 만든 신상은 우상이라는) 바른 말을 못하지요. 오히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단 지파가 북방으로 진출할 때 미가의 집에 들러 이 레위인을 꼬십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하고 말이죠(삿 17:19).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대형교회에서 초빙한 것이지요. 아마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했겠지요? 이 레위인은 후딱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삿 17:20). 그런데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곧 게르숨의 아들 요나단(삿 18:30)이라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 하면 사울의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성경에는

15 명의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어성경 중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가 있다는 KJV 에는 므낫세의 손자로 되어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와 므낫세는 영어로 n 에 해당하는 한 글자 차이로 합니다. 일부 필사본에 므낫세로 되어 있는데 글씨를 볼 때 나중에 n 을 삽입한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후손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KJV 는 왜 므낫세로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74. 기업의 땅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한 지파는? 단 (삿 18:1-2) ⇨ 여호수아 문제 30 번 참조
75. 레위인이 바람나서 가출한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봉변을 당한 곳은? 기브아 (삿 19:1-26) ⇨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기브앗(수 18:28)과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76. 레위인은 봉변당하여 죽은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하였나? 12 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다 (삿 19:29) ⇨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각 지파를 소집하는데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썼네요. 그런데 12 덩이라니 베냐민 지파에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참상을 보라고 보낸 모양입니다.
77.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삿 20:1) ⇨ 단은 가장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78.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을 안 11 지파가 동족상쟁 전에 먼저 한 일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음 (삿 20:13) ⇨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거부함으로 동족상쟁이 시작되었고 베냐민 측은 도망한 600 명(삿 20:47)의 남자들을 제외하고 전멸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79. 베냐민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주민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 (삿 21:5, 8, 10)
80. 베냐민 자손의 생존자 600 명의 남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해 주었나?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 명과(삿 21:12-14) 실로의 여자(삿 21:20-21) 200 명 ⇨ 베냐민과의 전쟁 후 미스바 총회에서 아무도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삿 21:1)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로의 여자들이 춤 출 때 베냐민 남자들이 붙들어 간 것은 딸을 자의로 내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장로들이 합니다(삿 21:22).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된 사태를 누우치며(삿 21:6) 장로들이(삿 21:16) 내어 놓은 고육지책이었습니다.